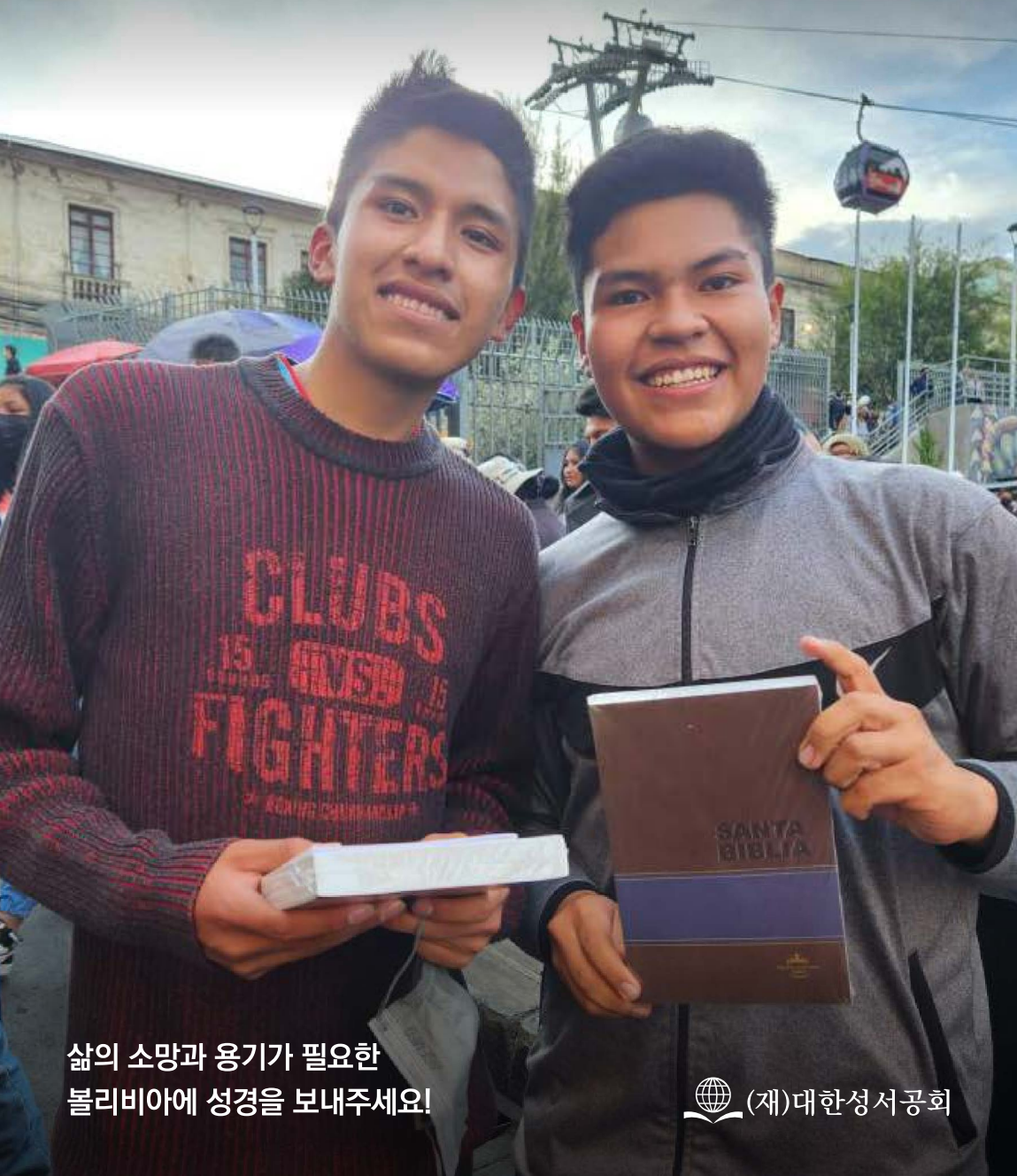


성서한국

THE KOREAN BIBLE SOCIETY NEWS

2023년 여름 제69권 2호



삶의 소망과 용기가 필요한
볼리비아에 성경을 보내주세요!



(재)대한성서공회

대한성서공회 성경 기증 프로그램

THE KOREAN BIBLE SOCIETY

세상을 밝히는 말씀의 빛

한글 성경을 통해 우리 선조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국 전통 사회의 구습을
타파·개혁하는 데 앞장서며
어두운 사회를 밝게 비추는
빛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어두움에 사로 잡혀 사는 이웃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와 회원님이 보내주신 현금,
이렇게 사용됩니다!



해외 성경 지원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이유로 성경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 성서공회들을 돕는 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역 프로젝트 지원

아직도 자신의 모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부족들이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첫 번역'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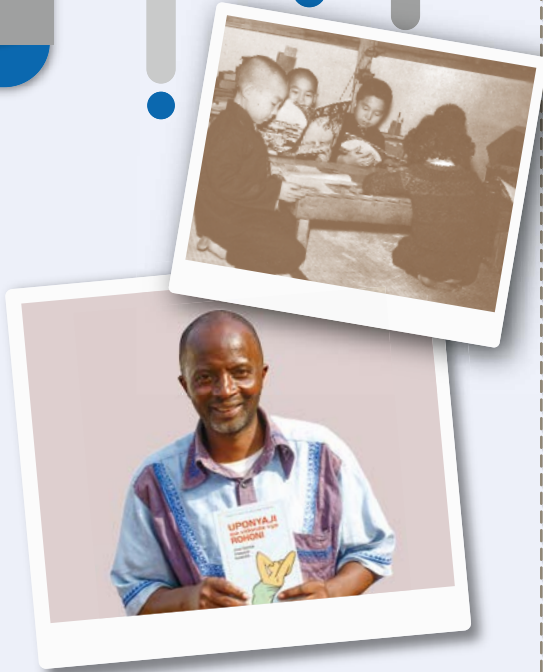
문자교실 & HIV/AIDS 치유 프로그램 지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자교실을 통하여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돕고, 에이즈 예방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보급합니다.



국내 성경 지원

국내 미자립교회, 군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에 성경, 신약, 단편, 전도지 등을 보급합니다.



한국교회와 후원 회원들께서 보내주시는 현금은 생명의 말씀을 구하지 못하는 국내외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에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서한국

2023 여름 제69권 2호

- 02 **포토에세이**
아픔을 만지시는 주님
- 04 **2023 상반기 성서사업 보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성서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06 **커버스토리**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는
볼리비아에 성경을!
- 10 **2023 해외 성서 기증 현황**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78개 나라에
성경을 보냅니다!
- 12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장년층 선교회에서 읽는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 14 **현장 이야기**
미얀마 파오어 첫 번역 성경전서를
봉헌하다
- 17 **수단을 위한 기도**
수단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18 **후원 이야기**
- 22 **대한성서공회 소식**
1. 2022 세계 성서 번역 현황
2. 제139회 정기이사회 개최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설립 목적은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를 번역,
출판, 반포하는 데 있습니다.
본 대한성서공회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의
회원국으로서 범세계적인 협조를 통하여 누구나 자기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발행인 겸 편집인 : 권익현
- 발행처 :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 주소 : **재단사무국/홍보진흥본부(모금·홍보)**
(06734)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성서사업센터 (1708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2로 197
- 회원문의 : 080-374-3061(수신자 부담)
- 성경구입 및 전도지 문의 : 02-2103-8847
- 지로번호 : 7511327
- 발행일 : 2023년 6월 30일
- 인쇄인·인쇄처·편집 : (주)타라타피에스
- *<https://www.bskorea.or.kr>
- 인터넷으로 성경 본문과 성서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본지는 도서집지 윤리실천 강령을 준수합니다.(비매품)
- *성서한국을 e-mail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 성경 기반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훈련 모습

아픔을 만지시는 주님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카메룬 등 아프리카*사헬 지역 국가들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보코하람의 위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조엘 목사 또한 박해를 몸소 경험한 후 크게 절망했습니다.
보코하람에 의해 지역 교회와 조엘 목사의 교회는 불타버렸고
살고 있던 집은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말로 할 수 없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이 힘든 상황을 공유하고 위로받을 수 없었습니다."**

조엘 목사를 회복시키고 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조엘 목사는 성경 기반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삶의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훈련 가운데 저를 아프게 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렸고,
주님께서서는 저의 아픔을 만지셨습니다.
저를 어두운 절망에서 끌어내
새로운 희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헬 지역: 아프리카와 사하라 사막 남쪽 가장자리에 있는 지역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성서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익현 사장



금년 상반기에는 계속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내외 성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서, 해외성서 제작 협의를 위한 자매 성서교회 대표들과 실무자들의 한국 방문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르완다, 탄자니아, 프랑스성서교회, 그리고 스페인어 성경 출판 및 공급을 위한 남미지역 성경 출판 위원회에서 본 공회를 방문하여 그동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제한된 성서 출판과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금년 3월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에티오피아에서 개최된 아프리카지역 성서교회들의 회의에 본 공회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본 공회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성경 출판 서비스를 소개하고 성서교회 대표들과 개별 대면 접촉을 통해서 그들의 고충과 안타까운 여러 상황을 청취하고, 자매 성서교회들의 성서보급이 중단되지 않고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내 성서 보급 사업

금년 상반기에는 지난 해 동기간에 비해서 260,318부가 증가한 414,173부의 성경을 보급하였습니다. 현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번역, 출간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이 교회와 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새한글성경』의 완역본은 금년 말 출간될 예정입니다.

해외 성서 보급 사업

금년 상반기에는 62개 나라에 78개 언어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8,577부가 증가한 1,810,792부의 성경을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되었던 성서보급이 재개되면서 자매 성서교회들의 성서 제작 요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공회에서는 자매성서교회들의 요청으로, 키시어 성경(기니)과 튀르키예어 어린이 그림 성경인 '하나님의 사랑'을 조판하였습니다. 2009년 이후 현재까지 198개의 조판 프로젝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들의 헌금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트가 완료되었으며, 10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외 성서 기증 사업 및 이를 위한 모금 사업

본 공회에서는 세계 성서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 미화 25만 불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성경 제작과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7개 성서교회에 252,570부의 성경을 제작하여 무상으로 기증하였습니다. 그동안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지난해부터 4차례에 걸쳐서 총 392,800부의 성경을 기증하였으며, 금년 2월에 일어난 지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튀르키예에 기증할 성서 31,600부를 제작하는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 교회와 후원회원들께서 국내외 성서 사업 지원을 위해서 총 35억 2천여만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국내외에 성경을 보내는 운동을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참여해 주시는 교회와 후원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분과, 총 5개 분과로 나뉘어 '개정 초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 초안'이 완성되면, 이를 두고 분과별로 교차 검토를 하여 '개정 검토안'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개정 초안' 작업은 2024년 말까지, '개정 검토안' 작업은 2026년 말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2027년부터는 위원장과 국어 책임 위원, 소장이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이를 확정해 나갈 것입니다. 🌐

이 내용은 대한성서교회 제139회 정기이사회에서 보고한 것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한눈으로 보는 2023 상반기 성서사업 보고



국내성서 보급

414,173부의
성서 보급



해외성서 보급

62개 나라에 78개
언어로 1,810,792부의
성경을 제작하여 보급



해외성서 기증

27개 성서교회에
252,570부의 성서 기증



후원 헌금

지난해와 비슷한
35억 2천여만 원

성경번역연구소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개정 작업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개정 위원회”가 16개 교단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제1회 전체 워크숍을 2022년 12월 15일에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16명의 개정 위원들과 5명의 국어 위원들이, 구약의 3개 분과와 신약의 2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는 볼리비아에 성경을!

독립 투사 시몬 볼리바르의 이름을 딴 볼리비아는 남아메리카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 국가로는 페루,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등이 있습니다. 면적은 우리나라의 5배 정도로 크지만, 총 인구는 1,200만 명 정도입니다. 볼리비아 인구의 40% 정도는 절대 빈곤선 아래에 속해있어 남미 최빈국입니다.

볼리비아의 소득 불평등은 남미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은 교육의 기회가 흔치 않으며,

있어도 교육의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또한 깨끗한 물과 기본적인 위생 시설이 부족하여 건강 문제도 크게 있습니다.

무너져버린 볼리비아의 가정

볼리비아의 가정 중 70% 이상이 불화와 폭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환경으로 인한 피해는 어린이들의 몫입니다. 가정 폭력을 견디지 못한 어린이들과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거리로 내몰린 어린이들은 범죄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가정으로부터 벗어난 어린이들은 보호소에서 지내거나, 돈을 벌기 위해 마약, 성매매 등 사회적 범죄에 빠져듭니다.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볼리비아성서공회는 이러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호소에 있거나 길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전함으로써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자신이 부모에게 버림받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부모님은 늘 저를 때리고, 집에 혼자 두어서 함께 살고 싶지 않았습다. 그래서 3명의 동생들과 흩어져 보호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받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학교에 다니는 것이 제 꿈입니다. 나중에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테리/볼리비아 어린이 보호소

성경으로 지켜나가는 믿음

볼리비아는 인구의 73%가 가톨릭이며 개신교는 17% 정도입니다. 볼리비아성서공회는 광장이나 공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 성경을 전해주며 하나님에 대해 전합니다. 볼리비아는 나라가 빈곤한 탓에 기독교인들조차 성경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길거리에서 받은 성경은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도 귀합니다. 처음 성경을 접한 사람들은 성경을 받고 기뻐합니다. 성경을 받은 기독교인들은 성경 말씀을 읽으며 믿음 지켜나가기에 다짐합니다.



▲ 볼리비아 어린이들 모습



▲ 보호소에서 어린이 성경을 읽고 있는 어린이

“성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적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 볼리비아 노방전도사역에서 성경을 받는 사람들

“성경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성경을 주셔서 온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 볼리비아 노방전도사역에서 성경을 받은 사람

“역사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신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지친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 볼리비아 노방전도사역에서 성경을 받은 사람

다시 일어날 용기를 전해주는 성경

볼리비아는 가정학대, 성폭력 등으로 인해 10대 미혼모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18세 이전 성폭력 피해 경험자는 3명 중 1명 꼴입니다. 볼리비아성서공회는 어린 소녀 피해자들을 위한 ‘소녀의 집’이라는 보호시설에서 성경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받은 어린 소녀

들은 기뻐하며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 삶의 소망이 생긴 상처 입었던 소녀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이들에게 다시 일어날 용기를 전해줍니다.

볼리비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볼리비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사랑을 전해주세요. 성경을 통해 볼리비아 사람들이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을 보내주세요! 📖

“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소녀의 집’ 간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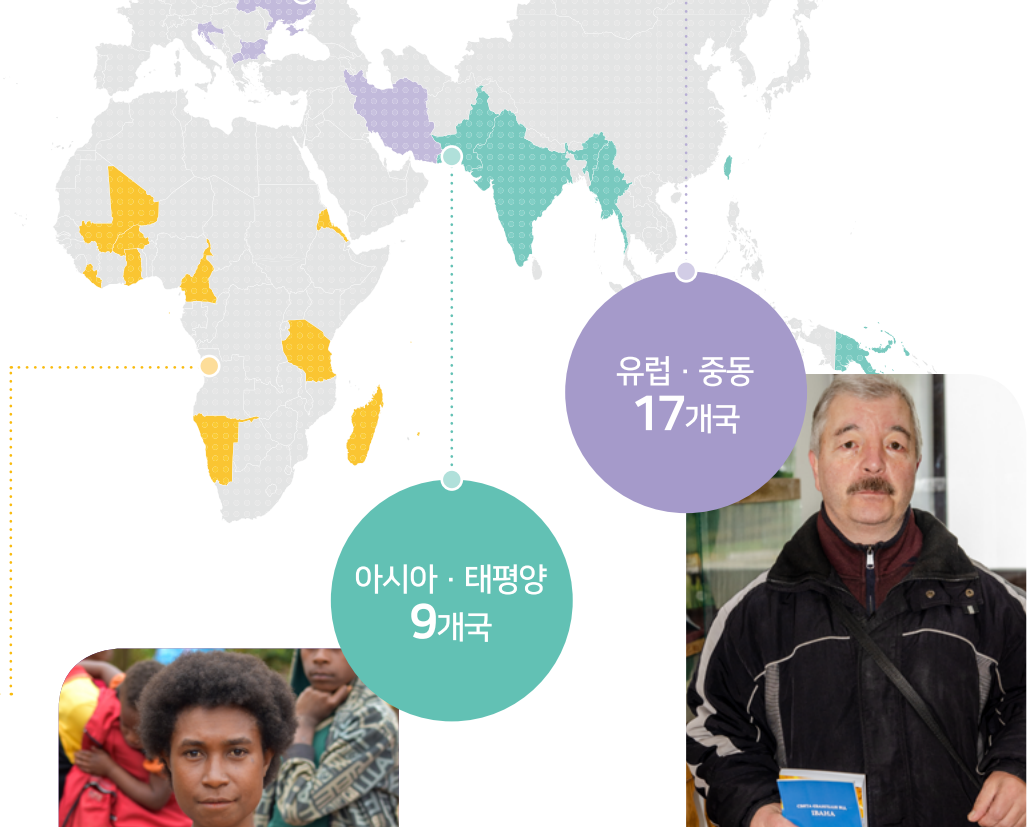
▲ 10대 소녀 보호시설 ‘소녀의 집’

10만 원을 헌금하시면 10명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볼리비아 사람들에게 보내는 컨테이너에 성경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후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 문의 080-374-3061(수신자 부담)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78개 나라에 성경을 보냅니다!

• 붉은 글씨 - 지금까지 성경이 발송된 나라 (2023.05.18 기준)



장년층 선교회에서 읽는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김인성(새문안교회 집사)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접하게 된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1964년에 발간한, 세로쓰기로 된 『관주 성경전서 간이 국한문』이었습니다. 그리 오래된 과거가 아닌 것 같은데도 당시의 많은 분들이 세로쓰기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은 딱딱하게 느껴지고 읽어 내기가 좀 더디긴 했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 한문이 섞여 있는 세로쓰기 성경이 활자에 힘과 무게감이 있어 오히려 성경답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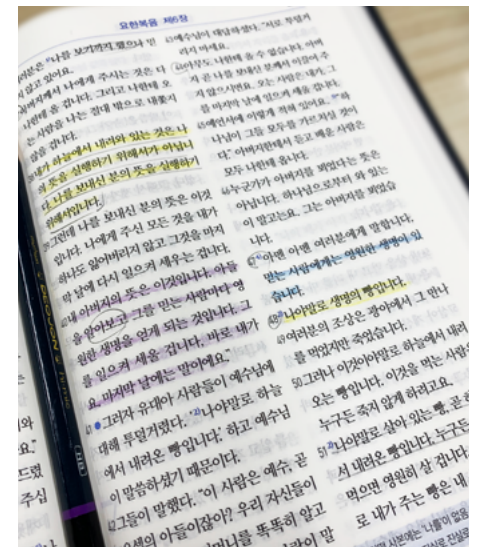
이후에 『성경전서 새번역』이 출판되어 읽게 되었을 때는 성경이 뭔가 새로워졌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개역성경에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구절들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읽기 쉬웠고, 다른 쉬운 번역본에 비해서 말씀의 무게감도 어느 정도 유지되었으며, 무엇보다 교회의 성경 번역 전통을 살렸다는 점에서 더욱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관심이 많은 저로서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새한글성경』이 출판된다는 소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주 가는 기독교 서점에 들어서 『새한글성경』 출판 소식을 알지 못하는 직원에게 알려 주며 책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런 정보 없이 책을 처음 받아 읽어 보니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번역이었습니다. 개역성경에 익숙해 있던 저로서는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상대방을 높이는 격식체를 사용하는 표현은 굉장히 낯설었고, 읽기에 좀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느껴지는 구절도 있었습니다. 한문체에 익숙한 50대 후반의 나이로 새로운 성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역본들을 비교하며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차츰 적응이 되고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읽어 가면서 더 단순하고 명료한 구절들이 많이 보였고 이해하기가 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 새문안교회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읽기 모임

수개월 전부터 우리 새문안교회에서는 선교회 때 모임에서 매달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시작해 다섯절씩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는데 참여자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표현이 참신하고 이해하기가 쉽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대화 문체에 두드러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직접 입술로 소리내며 통독하는 것이 더 잘 어울리는 성경이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마치 독자가 성경 속의 주인공이 되어 직접 말하는 느낌의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모여 통독하는 것이 잘 어울리며 이해하기도 쉬운 느낌입니다. 또한 이 성경 읽기 모임을 계기로 좀 더 의미 있고 참된 교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참여자는 그리 많지 않지만 많은 홍보를 통해 점점 더 확대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전서 새번역』에 이어서 출간된 『새한글성경』은 지금 이 시대와 다음 세대, 그리고 더 먼 미래의 세대를 위해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한 성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번역에 수고해 주신 여러 성경학자 분들과 대한성서공회에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



▲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미얀마 파오어 첫 번역 성경전서를 봉헌하다

▲ 봉헌된 미얀마 파오어 성경전서

미얀마 파오어 첫 번역 성경 봉헌식이 2023년 2월 19일 미얀마 산주의 타웅지 마을에 있는 로웨이 카웅 교회(Lwai Kaung Church)에서 열렸습니다. 파오어 첫 번역 성경 프로젝트를 위하여 한국의 명성교회(김하나 목사)가 2011년부터 12년 동안 후원을 하였습니다. 파오 부족은 인구가 200만 명에 이르는 큰 부족이지만 그 중 기독교 인구는 1천여 명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의 부족 사람들은 뿌리 깊은 불교인입니다. 하지만 2009년에 파오어 신약성경이 발간되면서 현지 사람들에게 대한 복음 선교가 본격화 되었으며, 불교 승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개종하여 목사가 되는 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후 파오 기독교인들은 파오어 구약 번역을 더욱 간절히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2019년 말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이동과 모임이 제한되어 성경 번역과 컨설팅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지 번역 팀의 노력과 명성 교회의 지속적인 후원으로 파오 부족의 첫 번역 성경전서 봉헌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봉헌식이 열린 로웨이 카웅 교회는 100여 년 전 산주 시장에서 복음을 전해 듣고 기독교인이 된 첫 파오 기독교인 4명이 세운 최초의 파오 부족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불교신자여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고 다른 부족에게 찾아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나무를 베어 직접 지은 교회에서 뜻 깊은 봉헌식이 열렸습니다.



▲ 봉헌식이 열린 로웨이 카웅 교회

봉헌식에는 1천 명 이상이 참석해 교회 내부는 물론 교회 마당까지 사람들로 가득하였습니다. 파오 부족은 교회 마당에서 전통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을 부르며 성경 봉헌을 기뻐했습니다. 축제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파오어 성경전서는 교회로 운반되어 들어왔고, 봉헌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사람들의 표정은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파오어 성경전서를 받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손에 성경을 들고 “할렐

루야”를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미얀마성서공회 총무 코이 람 탕 목사는 봉헌식에서 파오 부족 사람들과 현지 교회 성도들을 대표해 긴 성경 번역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기까지 함께해 준 명성교회와 대한성서공회에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또한 파오어 구약 번역의 번역자였던 쿤 바산 목사는 “저희는 오늘 파오어 성경전서를 받았습니다. 저희의 기쁨을



▲ 파오어 성경 전달(왼쪽부터 파오 교회 사우 티오도 목사, 번역자 쿤 바산 목사, 미얀마성서공회 코이 람 탕 총무)

수단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파오어 성경전서를 소중히 품에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번역과 출간하기까지 긴 여정을 저희와 함께해 주신 명성교회와 김삼환 목사님과 모든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하며 기쁨과 감사를 전했습니다.

2021년 기준 전 세계 7,376개의 언어 중 파오 부족과 같이 성경전서가 번역된 언어의 수는 719개에 불과합니다. 여러 소수민족들은 폐쇄적인 분위기와 언어의 장벽으로 복음을 듣기 어렵고, 소수민족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없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 많은 소수민족들이 파오 부족과 같이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받아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성경전서를 받은 파오 부족이 성경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파오 부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



▲ 시위에 참여하는 수단 사람들의 모습

지난 4월 15일,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수단에서 군벌 간 무력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수단의 준군사조직인 RSF가 일으킨 분쟁으로 수단 정부군과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 하르툼과 서부 다르푸르를 중심으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며, 8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수천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또한, 여러 공장들이 불타 식품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수도 하르툼의 주민들은 식량난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단을 떠나 주변 국가로 피신하고 있습니다. 이 분쟁으로 수단 인구 중 130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끝이지 않는 분쟁으로 수단 사람들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수단성서공회는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돕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수단성서공회는 분쟁으로 고통받는 수단을 위해 기도를 요청해왔습니다.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는 가운데에서 수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기도 제목

1. 분쟁이 하루 속히 멈추고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더 이상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3. 수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 성경 증정(왼쪽부터 본 공회 권익현 사장, 창조교회 홍기영 목사, 창조교회 이상경 장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초석, 성경

창조교회/이상경 장로·김연옥 권사 - 니제르 <불어 성경> 3,218부 기증

2023년 4월 17일, 창조교회(홍기영 목사)와 이상경 장로, 김연옥 권사 부부의 후원으로 니제르에 <불어 성경> 3,218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증 예식에서 홍기영 목사는 “말씀의 반포가 가지는 능력은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데에 있어서 놀라운 축복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은혜를 담아 함께 보내는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라고 하며 기쁨을 전했습니다.

니제르성서공회 하마 야에 총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수년간 계속되는 홍수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무슬림이 대다수인 니제르에서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을 후원해 준 창조교회와 이상경 장로, 김연옥 권사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창조교회 이상경 장로는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기여하고 그에 대한 초석이 된다면 감사하겠습니다.”라며 기대를 전했습니다.

이번에 성경을 후원하는 니제르는 인구의 80%가 무슬림으로 기독교인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니제르의 기독교인은 과격 이슬람 무장 단체인 보코하람의 주된 공격 대상입니다. 또한 작년 9월, 니제르를 강타한 엄청난 홍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포함하여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 속으로 내몰렸습니다.

니제르에 전해지는 <불어 성경> 3,218부는 펄박으로 고통받는 니제르의 기독교인들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니제르 사람들이 후원받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구원의 소망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기증하는 성경을 들고 있는 김영례 권사 가정

성경을 통해 전도가 이루어지기를

김영례 권사, 왕보람 대표 -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어 성경> 2,500부 기증

2023년 5월 2일, 김영례 권사, 왕보람 대표의 후원으로 크로아티아에 <크로아티아어 성경> 2,500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김영례 권사는 부군되는故왕기일 장로의 유지를 따라 6년째 해외 성경 보내기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2018년 마이크로네시아, 2019년 가봉, 2020년 부르키나파소, 2021년 모잠비크, 2022년 말라위에 이어 올해 크로아티아까지 총 31,522부의 성경을 후원했습니다.

크로아티아성서공회 다미르 리포브섹 총무는 긴 경기 침체로 성경을 살 경제적 여력이 없는 크로아티아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후원해 준 김영례 권사와 왕보람 대표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김영례 권사는 “크로아티아에 이 성경이 잘 전달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보내기 운동에 동참하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크로아티아 땅에 전

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라며 기대와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번에 성경을 후원하는 크로아티아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로 독립 전쟁(1991~1995) 이후 지금까지도 경기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경제 수입이 관광인 크로아티아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아 유럽 국가임에도 빈곤선 이하 인구가 20% 가까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기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성경을 살 경제적 여력이 없습니다.

크로아티아에 전해지는 <크로아티아어 성경> 2,500부는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성경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 구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시절부터 이어진 공산주의의 영향과 세속화된 사회 속에 살아가는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 기증 예식에 참석한 빛교회 성도들



▲ 성경 증정(왼쪽부터 본 공회 권의현 사장,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며

빛교회 - 니카라과 <미스키토어 성경> 1,000부, <스페인어 성경> 400부 기증

2023년 5월 4일, 빛교회(양태우 목사)의 후원으로 니카라과에 <미스키토어 성경> 1,000부, <스페인어 성경> 400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증 예식에서 빛교회 양태우 목사는 “우리 나라를 일으킨 말씀을 통해 니카라과에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서 중남미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임 받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며 기대를 전했습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남미 책임자인 마르코 마르티네즈는 영상 인사를 통해 “빛교회가 후원해 주신 성경을 통해 니카라과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귀한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본 공회 호재민 총무는 “니카라과의 미스키토 부족은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없고, 심지어는 목회자들조차도 성경이 없습니다. 이러한 나라에

빛교회의 후원으로 성경을 보내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 일어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해 봅니다.”라며 기대를 전했습니다.

이번에 성경을 후원하는 니카라과는 중남미에서 아이티에 이은 최빈국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전기 및 상수도 시설이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아이들은 학업을 중단하고 돈벌이에 나서곤 합니다. 특히 니카라과 북부의 큰 미스키토 부족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최빈층입니다. 이들이 무엇보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미스키토어 성경을 갖는 것입니다.

니카라과에 전해지는 <미스키토어 성경> 1,000부는 니카라과의 미스키토 원주민 부족들에게 전달되어 신앙을 지키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스페인어 성경> 400부는 가난 속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경 보급은 세계 선교 첫 걸음

여의도순복음교회 - 이란 <페르시아어 성경> 6,205부 기증, 튀르키예 <튀르키예어 성경> 후원

2023년 5월 12일,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의 후원으로 이란에 <페르시아어 성경> 6,205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지는 한편,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를 위한 <튀르키예어 성경> 후원금(7천 5백만 원)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증 예식에서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성경 보급 사역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 보급은 세계 선교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튀르키예에는 구호물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며 기대를 전했습니다.

이란 디아스포라성서공회 나히드 세페리 총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이란에서는 성경의 인쇄마저 금지되었지만,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로 무료로 성경을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받게 된 사람들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하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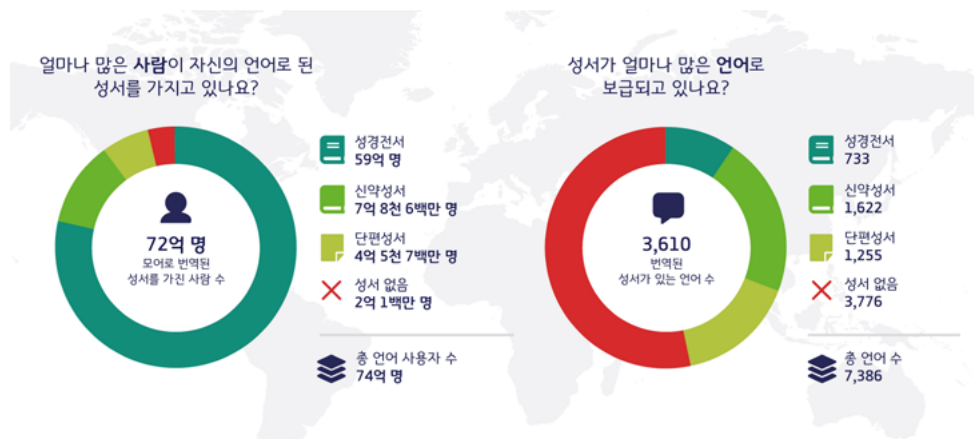
본 공회 권의현 사장은 “여의도순복음교회의 후원으로 이란에 성경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성경은 굉장히 소중합니다.”라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번에 성경을 후원하는 이란은 인구의 98%가 무슬림인 강력한 이슬람 국가로 선교와 전도가 어렵고 소수의 기독교인들은 종교적 핍박과 차별 속에 놓여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가운데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은 말씀에 목말라 있지만, 이란에서는 성경을 직접 제작할 수도 없고 성경을 구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에 보급되는 <페르시아어 성경>은 이슬람 세력의 위협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기독교인들에게 힘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중요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

1. 2022 세계 성서 번역 현황

전 세계, 3,610개의 언어로 성서가 번역되다



▲ 2022년 세계 성서 번역 현황 인구, 언어 통계

2022년은 코로나가 3년째 이어진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7억 2천 3백만 명이 사용하는 81개의 언어로 된 성서가 번역되었습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총무 더크 게버스(Dirk Gevers) 목사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독특하고 강력한 서사의 중심부에는 성경 번역이 있습니다. 번역팀들은 사명의 최전선에 서서 자신들이 섬기는 공동체들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이는 실로 ‘사랑의 노동’으로, 지속적인 헌신이 요구되는 힘겨운 과업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던 격려처럼 성서 번역에 헌신하는 번역팀 각 사람이 ‘견실하며 굳게 서도록’ 되길 기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23년 초 기준, 총 7,386개의 언어 가운데 성경전서는 733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보급되었습니다. 신약성서는 1,622개 언어로, 단편성서는 1,255개 언어로 번역 되었고 아직 3,776개의 언어는 단편 성서조차 번역되지 않았거나 번역 중입니다.

전 세계 59억 명이 성경전서를 갖게 되었고 자신의 언어로 번역된 신약성서를 갖게 된 사람들은 7억 8천 6백만 명, 부분적으로 번역된 성서를 갖게 된 사람들은 4억 5천 7백만 명입니다. 하지만 2억 1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 세계 언어 절반가량은 아직 성서조차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5억 명은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전서가 없습니다.

2022년 한 해, 성경전서와 신약성서, 단편성서를 포함하여 57개의 언어로 첫 번역 성서가 출판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14개 언어는 성경전서로, 5개 언어는 신약성서로, 38개의 언어는 단편성서로 번역되었습니다.

파이(Tày) 부족은 베트남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부족으로, 180만 명이 넘는 파이 부족민들은 베트남 63개의 주와 도시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파이 부족 기독교 공동체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깊은 열망을 가지고 있으며, 파이어 성경 갖기를 열망해왔습니다. 2022년 말에 출간된 첫 번역 파이어 성경은 바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 파이(Tày)어 첫 번역 성경을 축하하는 파이 부족 사람들

세계성서공회연합회는 모든 언어로 성서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번역 기관들 간의 협력 증대, 기술의 발전과 후원자들의 동참 등을 통해, 최근 몇 년 동안 성서 번역 역사에서 이전에 없었던 흐름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2038년까지 1,200개의 성서 번역을 완성한다는 큰 비전에 중점을 두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880개는 첫 번역 프로젝트고, 나머지 320개 프로젝트는 새로운 번역이거나 개정을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현재까지 133개 번역이 완성되었고, 333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

2. 제139회 정기이사회 개최



▲ 신 임원 소개(왼쪽부터 회계 이선균 목사, 서기 김현배 목사, 이사장 김순권 목사, 부이사장 김경원 목사)

대한성서공회 제139회 정기이사회가 2023년 5월 24일(수), 오전 10시 30분에 서초 성서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1부 기도회에서는 송태근 목사(삼일교회)가 “세 가지 준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2부 회무처리에서는 신 이사 중 교단대표로 박태식 사제(대한성공회), 김상현 목사(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 김은섭 목사(기독교한국루터회), 이영훈 목사(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양병희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가 소개되고, 찬성회원 대표로 정명철 목사, 김순권 목사, 김동권 목사, 문희수 목사, 이선균 목사, 김광년 장로가, 감사로는 박철영 장로, 송영훈 장로가 소개되었습니다. 이어서 권의현 사장의 사장 보고와 호재민 총무의 모금 사업 보고, 이두희 소장의 성경번역연구소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신 임원을 인선하여 이사장 김순권 목사, 부이사장 김경원 목사, 서기 김현배 목사, 회계 이선균 목사가 선임되었고, 실행위원에는 손인웅 목사, 정하봉 목사, 양병희 목사, 이용호 목사, 김동권 목사, 이정익 목사가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두희 번역담당 부총무(소장)를 번역담당 총무로 선임하였습니다. 🌐

매월 전하는 성경,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사랑하는 가족,
지인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전하는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가족, 지인분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기쁨을
선물해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기

홈페이지  인터넷 검색창에 **대한성서공회** 입력하신 후,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02 전화로 가입하기

후원자 전용 전화  080-374-3061(수신자 부담)

03 직접 송금하기

송금 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재)대한성서공회)

후원계좌

국민은행 070-01-0340-570	신한은행 140-009-909678
우리은행 1005-702-311166	수협은행 033-01-085327
농협은행 355-0025-0990-53	우 체 국 011916-01-000076
KEB 하나은행 224-910049-47104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 디모데후서 3:16~17

"성경은 지친 저의 마음을 치유해 줍니다."

- 성경을 받은 볼리비아 사람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볼리비아 사람들은
성경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후원한 성경을 받은 사람들은
대단히 기뻐하며 믿음을 세워나가기를 다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볼리비아에 성경을 보내주세요!

